

무안교육청 마을학교 확대

무안마을학교 운영 기관 16곳 중 12곳 선정

운영자 협의회 열어 네트워크 협의회 등 추진



무안교육청은 최근 무안마을학교 공모 심사 결과 무안마을학교 운영 기관(단체) 12곳을 선정했다. 2020 무안마을학교 공모를 위해

서 마을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마을학교 이해 연수, 선진지 탐방, 성과 나눔의 날을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공모 결과 16개의 기관(단체)에서 응모하였으며, 각 마을단위 특성을 반영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현장 실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곳(나무늘보, 남야2리, 너나들이, 만드리, 모아작은도서관, 무안교육희망연대, 무안성내휴먼시아, 빛솔교육공동체, 이음터, 월선권역영농조합, 정명청량, 토비)을 선정했다.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의 삶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무안아이들의 꿈을 가꾸는 무안마을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안교육청에서는 이번 마을학교 선정에 이어 다음 주에 마을학교 운영자 협의회를 갖고, 중심마을학교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마을교육지원지도 만들기, 성과나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교육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현장지원단 큰 호응

담양교육청은 지난 1월 지방공무원들의 학교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역량강화 현장지원단은 관내 학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히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워하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구성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고 지원 강사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주무관과 경력이 많은 행정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역량강화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자마자 업무공백이 있는 관내



학교에 2020학년도 예산편성 및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희 교육장은 “업무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원 및 전

문적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소중한 혁신담양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남교육청, 정보공개 우수

전남도교육청이 2019.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577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15곳이 받았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중 상위 20%에 주어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전남도교육청은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정보를 선제적·적극적으로 공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정보공개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허성은 기자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설

광주시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교육연구정보원 이설과 연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공간 구성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립 예정부지는 광주 오치동에 위치한 자연과학고 내 유희부지(면적 약 21.640㎡)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부지 매입비를 줄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대형버스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설립 예정인 진로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공사에 착공해 2023년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로체험센터가 들어서는 자연과학고 내 유희부지에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다. 향후 진로체험센터와 교육연구정보원이 이곳에 세워지면 접점이 좋아지고, 활용도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 부지는 2016년도에 광주시청과 함께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상무·치평중 통폐합 및 재구조화를 진행할 부지에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학부모 반대로 학교 재구조화가 무산됨에 따라 주변 여건을 감안해 현 예정 부지로 선정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진로체험센터 설립과 교육연구정보원 이설이 추진될 경우 예산은 약 400억~500억원 정도가 필요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진로체험센터 설립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및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020년도 프로그램 강사 공개 모집

평생교육 및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2020년도 평생교육 및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친환경 폐기물(3명)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11명을 모집한다.

지원희망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및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 서류를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문헌정보과로 직접 방문·제출

한다. 한편,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은 △나를 찾아서(8명) △찾아가는 꾸미움(3명)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11명을 모집한다.

지원희망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및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 서류를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문헌정보과로 직접 방문·제출

하면 된다.

28~31일 나흘 동안 접수를 진행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2월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차 면접심사는 2월6~7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월11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목포공공도서관,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다 같이 함께해요

목포공공도서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진행



목포공공도서관이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3일 목포 청호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명물로 알려진 청호시장을 방문해 볼거리와 먹거

리가 풍성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청호시장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정담게 대화하며 즐거운 장보기 시간을 가졌고 “명절 뿐 아니라 평소에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추억도 쌓고 알뜰하게 장보기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철복 관장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